

기후 회복을 위한 40일의 약속 - 〈탄소금식〉캠페인, 기자 및 교회 설명회

- 일시 : 2020년 1월 30일(목요일) 오전 11시
- 장소 :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신관 4층 크로스로드
- 주요내용

- 사 회 - 조옥향 (권사, 살림 운영위원, 기감 강북지방여성선교회 교회학교연합회장)
- 여는 기도 - 정성진 (목사, 살림 공동대표, 크로스로드 선교회 대표)
- 침묵기도 - 호주 산불로 죽어간 생명과 기후 위기로 신음하는 창조세계를 위한 침묵
- 기도
 - 호주 산불과 기후 회복을 위한 회개와 실천을 위해 / 이송리(권사, 살림 공동대표, 새문안교회)
 - 예수의 고난, 피조물의 고통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위해 / 신정숙(목사, 살림 이사, 은빛교회)
 - 기후 약자와 창조세계의 회복을 위해 힘쓰는 한국교회를 위해 / 다함께 (침묵)
- 탄소금식 캠페인 취지 설명 및 인사 / 이광섭(목사, 살림 공동대표, 전농교회)
- 탄소금식 캠페인 함께하는 말씀 / 참여교단 및 기관 교회
- 공동주최자 및 세부 진행방식, 기타 추가사업 안내 / 유미호(살림 센터장)
- 질의 및 응답

- 현재까지 공동 캠페인 진행하기로 한 곳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회봉사부, 한국 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원, 한국장로교총연합회 기후환경위원회/ 가정교회마을연구소, 교회와사회연구소, 도서출판 동연, 온생명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세움앤나눔(카페 온), 크로스로드/한국교회생명신학포럼/ 도담교회, 원주영은교회, 온누리교회 생명환경팀, 새문안교회 사회환경팀, 전농교회 환경위원회, 광주벤엘교회, 성공회 워싱턴교회, 서울송천교회 고등부, 장유힐라교회(김해), 새생명교회, 귀둔산책도서관(귀둔교회), 하남영락교회/ 바이블25/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 신청 및 문의 :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070-7756-0226, ecochrist@hanmail.net)

기후 회복을 위한 <탄소금식>캠페인 전개

- <탄소금식>은 기후 회복을 위한 사순절 40일의 약속입니다.
 - 우리가 지구에 고통을 주며 누리고 있던 것을 고백합니다.
 - 지구의 아픔을 덜어주는 거룩한 습관을 연습합니다.
 -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피조물의 고통을 묵상합니다.
- 교회 및 기관, 교회의 환경팀과 **공동으로 하는 사순절 탄소금식 캠페인**으로 전개
- 온·오프라인의 <탄소금식 묵상 및 실천 카드(하루 혹은 주 단위)> 제공을 통해, 교회 주보나 홈페이지, 이메일, 문자 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
- 그리스도인과 교회 각자 각자가 기후 위기를 마주하여 응답함으로, **자신들만의 기후 회복을 위한 '지구사랑온도 1.5' 실천계획을 수립해 실천하는 문화 확산 기대**
 - '지구사랑온도 1.5'에 관한 공부모임 및 실천워크숍, 기도회 지원
 - 교회별 '지구사랑온도 1.5'를 위한 환경교육 및 선교 컨설팅
- 사순절 동안 하루 단위로 '지구이웃과 함께 하는 40일 묵상여행' 진행
 - 단행본 **"지구이웃과 함께 하는 40일 묵상여행" 발간**
(남호주연합교회 지음,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엮음, 동연출판)
 - 성경앱 <바이블25>에 **재의 수요일(2/26)부터 하루 단위씩 업로드**
-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살림나눔발전소> 건립
 - '금산간디학교'에 3년에 걸친 에너지프로젝트 수업의 결과와 기금 지원(1천만원)을 통해 20kW의 태양광발전소인 '환경살림나눔발전소1호' 건립 예정(시공, 감리교 햇빛발전협동조합) -> 2차(평강원로원 예정)
- 「탄소금식(blog.daum.net/ecochrist) 해시태그 이벤트
 - 2/26일(수) ~ 4월 11일(토)까지 7주간 진행
 - 「탄소금식」실천카드에 게시된 묵상과 실천내용을 함께 나누고 실천하는 내용을, 소속(모임 혹은 교회명)과 함께 자신의 SNS에 공유하거나, 직접 ecochrist@hanmail.net에 전송하면서 태그(#탄소금식)로 참여
 -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네이버 블로그 등) 사용자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 추천하여 환경교육 콘텐츠 및 환경교육 무료 수강권 제공

기독교환경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환경교육입니다.



1

아무것도 사지 않기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소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소비자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봅시다. 개인적인 필요로 물품들을 구매하여 이미 충분히 갖고 있는 물품이나, 불필요한 소비를 지양하여 과잉소비와 쓰레기 배출량을 줄입니다. 그렇게 할수록 지구의 자원을 아끼는 것입니다.

한번에 읽히는
경건한 40일
탄소공식

기독교환경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환경교육입니다.



2

일회용(플라스틱) 금식

기름칠하지 않는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컵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비닐봉지와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고, 종이컵에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환경 부담을 줄이고, 일회용을 사용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한번에 읽히는
경건한 40일
탄소공식

기독교환경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환경교육입니다.



3

전기사용량 줄이기

전기를 절약하는 습관을 계속하고 생활합니다. 에너지 절약 습관을 기르는 습관은 지구의 자원을 아끼는 것입니다. 생활하는 모든 행위의 대안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노력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 플러그를 끄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일부 전기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가능합니다.

한번에 읽히는
경건한 40일
탄소공식

기독교환경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환경교육입니다.



4

고기금식

육상동물은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는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합니다. 기독교 환경은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19년 3월 1일부터 고기 금식을 실시합니다. 또한 기독교로 믿는 사람들은 40일 금식을 실천합니다. 건강에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에 읽히는
경건한 40일
탄소공식

기독교환경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환경교육입니다.



5

전등끄고, 기도의 불 켜기

에너지 절약은 기후변화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전 세계가 추구하는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중 하나입니다. 기도의 불을 켜고 기도의 불을 켜십시오. 일주일 동안 전기를 끄고 기도의 불을 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40일 금식을 기억하십시오.

한번에 읽히는
경건한 40일
탄소공식

기독교환경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환경교육입니다.



6

종이금식

4월 1일은 종이 금식의 날입니다. 본래 목회 업무는 종이 사용은 100% 줄입니다. 이목을 할 필요 없이 종이 사용은 100% 줄입니다. 목회 업무 종이 사용은 100% 줄입니다. 종이 사용은 줄이고 기후변화를 줄입니다. 목회 업무 종이 사용은 줄이고 기후변화를 줄입니다.

한번에 읽히는
경건한 40일
탄소공식

기독교환경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환경교육입니다.



7

지구를 살리는 거룩한 습관

거룩한 습관, 영적생활을 통하여 지구를 살리는 습관, 지구 온난화를 줄이고, 기후변화를 줄입니다. 거룩한 습관, 영적생활을 통하여 지구를 살리는 습관, 지구 온난화를 줄이고, 기후변화를 줄입니다. 거룩한 습관, 영적생활을 통하여 지구를 살리는 습관, 지구 온난화를 줄이고, 기후변화를 줄입니다.

한번에 읽히는
경건한 40일
탄소공식

<내용 (텍스트)>

2020 “탄소금식” 캠페인 내용(텍스트)

하루 단위 탄소금식 캠페인

Day 1 마 6:1~6, 16~21.01

- 거주하고 있는 공간에 있는 전구 한 개를 뺍니다. • 이후 40일 동안 없이 지낼 마음을 먹습니다.
-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을 확인해, 우리 집의 탄소 발자국을 확인합니다.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아닌 것, 참 내가 아닌 것들로부터 해방되어 주님 안에 숨어 지내는 기쁨을 발견하게 하소서.

Day 2 눅 9:22~25 .02

- 오늘 중 1시간 이상 시간을 내어 걷되, 걸으며 자 신이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봅니다.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긴다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길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기쁨을 누리게 되길 기도합니다.

Day 3 마 6:19~21, 25~34 .03

- 엘리베이터의 ‘닫힘’ 버튼 누르지 않습니다.
- 5명이 한 번 움직이는 것과 1명씩 5번 움직이는 것 중 어느 쪽의 전기 소비가 적을까요? 그리고 3층까지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걷습니다. 걸어 다니면 몸도 가뿐해지고 소중한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하늘 나는 새들처럼 탐욕이 아닌 필요에 깨어, 풍성한 생명을 누리길 원합니다.

Day 4 눅5:27~32 .04

- 우리나라 과일과 채소를 먹습니다.
 - 국민 1인당 푸드 마일리지가 6,670km/t 입니다. 인근 지역에서 난 제철 먹거리거리를 소비한다면 연간 600km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한 동안 ‘버릴 것’정리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버리려 하기’보다 ‘주께 사로잡히면’ 그냥 버려두고 따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제 마음 온전히 빼앗아 주시옵소서.

Day 5 마 1:1~13 .05

- 방을 나갈 때는 전등을 끕니다.
 - 매일 두 시간씩 형광등(32W 2개)을 켜 둔다면 월 3.8kWh의 전기가 더 소비됩니다.
-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사랑한다. 좋아한다. 말씀해주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Day 6 막 1:14~28 .06

- 대기전력에게 ‘안녕’이라고 말합니다.
- 전기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상 스위치를 껐는지 확인합니다. TV를 끄는 것만으로도 일 년 동안 20kg이나 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님,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본받아 따름으로 제 몫을 하는 제자로 살게 하소서.

Day 7 막1:29~45 .07

- 물을 받아서 세수하고 이 닦습니다.
- 물이 부족한 아프리카의 친구들은 아침 일찍 커다란 물동이를 들고 4시간이나 걸어서 물을 길어온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5천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수인성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은 생명수입니다. 우리가 갈증을 느낄 때, 지구도 목마르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가까운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주님이 다니셨던 마을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을을 품습니다. 마을 안의 상처와 아픔을 보게 해주시고 돌보게 하 시옵소서.

Day 8 막12:1~12 .08

- 독서할 책(특히 만화책)은 각자 사지 말고 돌려 봅니다.
- 세계적으로 잘린 나무의 35%가 종이를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책을 사기보다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헌 책을 활용하는 것도 재활용의 또 다른 활용법이 다. 연습장이나 메모지도 이면지를 이용하는 습관을 가져봅니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주님, 제가 걷고 있고 또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를 봅니다. 주님 따라 흐르지 않고 고여 있는 곳을 볼 수 있게 도와소서. 그 자리를 거두어 들고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Day 9 막2:13~22.09

- 식기세척기(전기압력밥솥, 전자레인지)를 하루 쉬게 합니다. (에너지 효율등급을 점검하고 바꿀 때에는 1등급으로 향상시키리라 마음먹습니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족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에도 가족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족부대에 담아야 한다. 새봄, 만물을 소생시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제게도 오셔서 굳어진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Day 10 막 2:23~3:6 .10

- 오늘 하루 채식을 합니다.
- 지구 땅의 30%가 축산용으로 활용되고, 농산물의 1/3이 사료로 쓰입니다. 특히 콩의 경우는 90%를 가축이 먹습니다. 또, 축산은 다량의 물과 에너지가 쓰입니다. (1kg 생산할 때의 물 소비량 : 쌀 3천 리터, 소고기 15,500 리터)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라”하고 말씀하셨다.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주님, 제 안의 굳어진 마음을 보고 손을 바로 내밀 수 있게 도와소서.

Day 11 막3:7~19.11

- 집의 전기와 가스 공급업체를 알아보되, 환경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봅니다.
-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생각해보고, 필요하다면 건의해 봅니다.

악한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서 외쳤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 드러내지 말라고 심하게 꾸짖으셨다.

주님, 당신을 바로 알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놓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Day 12 막3:20~35 .12

- 목욕 대신 샤워를 합니다. 물론 물을 데우는 것도 평소보다 낮은 온도로!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오늘도 주님 뜻 이루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따로 또 같이 이루어가는 자,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들을 축복하소서.

Day 13 막4:1~20.13

- 비닐봉지를 사양하고, 시장에 갈 때에 장바구니를 꼭 가져갑니다.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함께 싹을 틔우는 좋은 밭을 허락하옵소서.

Day 14 막4:21~34.14

-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살림의 씨앗을 들 여다 봅니다.
“겨자씨...세상에 있는 그 어떤 씨보다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주님, “살림”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도와소서. 결코 나의 이익과 욕망을 성취 하는데 그 자유를 써 버리지 않게 도와소서.

Day 15 막4:35~41.15

- 차를 끓일 때는 필요로 하는 양을 생각하여 그 만 큼의 물만 찻주전자에 채웁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 믿음이 없느냐?”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이끌든지 따르든지 비키든지 간에 우리 안에 주님이 움직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현존 안에서 우리가 담대히 “살림”을 위해 행하게 하옵소서.

Day 16 막5:1~20.16

- 비행기의 이동거리를 줄입니다.
 - 공정무역 상품을 제외하고는, 비행기로 운송된 음식은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네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 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 주신 일을 이야기 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그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누리게 하신 은혜를 기억 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전해야 할 곳에 바로 전할 수 있게 도우소서.

Day 17 사66:2, 마:36.17

- 퇴비를 만들어 봅니다.
- 음식물쓰레기가 쓰레기매립장에 가서 메탄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돌아가도록 돕니다.
- 나의 손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나 나는 가련한 사람과 통회하는 사람,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사람을 보고 있다.
-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이 불안해하며, 흠여져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도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둘러 친 하늘 장막으로부터 몰아낼 수 없습니다. 주님은 수많은 절규와 말할 수 없이 탄식하는 이 세상을 감싸고 계십니다.” <파울 게르하르트>

Day 18 막6:1~13.18

- 세탁기는 빨래를 최대한 모아서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 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주님, 저에게 있어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불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생명을 살리는 “살림”의 길을 걸어갈 때에 가지고 있어야 할 “나의 지팡이”를 보게 하옵소서.

Day 19 막5:14~16.19

- 종이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천해봅니다.
- 한 번 쓴 봉투와 종이는 다시 쓰고, 복사할 때는 이 면지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 이면지가 아니라면 양면 복사를!

너희는 빛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감추어둔 비밀이 아니다. ... 내가 너희를 언덕 위에, 등불 놓은 단 위에 두었으니 빛을 비추어라! 너희에게 오는 손님을 기쁘게 맞아들여라. 후하게 베풀며 살아라.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면 그들도 너희에게 자극을 받아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마음을 열게 될 것이다. 주님, 당신의 빛깔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반갑게 맞아들이며 후하게 베푸는 자 되게 도우소서. 당신의 빛을 비추게 도우소서.

Day 20 막6:30~46.20

- 수도꼭지를 꼭 잠급니다.
 - 하루 동안 흘러버려지는 것만으로도 욕조 하나를 가득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주님, 비워야 진정 쓸모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겠지요? 몸과 마음을 비우며 주께 나아가오니, 저는 물론 ‘살림씨앗’들에게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진정 쓸모 있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허락하옵소서.

Day 21 막6:47~56.21

- 지자체가 지역의 환경을 훼손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 재활용시설 등을 잘 운영하고 있다면 감사드리고, 더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여 요청합니다.
-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주님, 주님을 내 안에 모십니다. 우리의 애쓰미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을 따르기 때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배에 오르셔서 평안을 허락하소서.

Day 22 막7:1~23.22

- 집안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이는 누구일까요? 엄마도 아빠도 아닌 냉장고입니다. 한 가정의 전기요 금 중 ¼을 냉장고가 차지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덜 여닫고(하루 4회 문을 더 열면 월 0.8kW 더 소비), 냉장 고 안에 음식은 60%만 채웁니다.

시다. (월 최고 7.2kW 차이)

- 냉장고에 보관음식 목록표를 붙여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주님, 땅에 깊이 뿌리내린 나무를, 파란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새들을 바라봅니다. 때때로 그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살림씨앗들에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소서.

Day 23 막7:24~37.23

- 차 주인이 타이어의 압력을 점검하도록 요청합니다.

- 압력이 낮으면 연료소비가 높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주님, 주님을 찾는 여정을 멈추지 않도록 안내력을 주소서.

Day 24 막8:1~10.24

-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와 그 동안의 실천에 따른 변화를 고지서나 공급업체를 통해 확인합니다. •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 사용을 삼가는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전기의 경우 일반 가정 (4인기준)의 평균 사용량은 월 200kWh 정도인데, 그 이상이면 누진요금에 적용돼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들 가운데는 먼데서 온 사람도 있다.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 늘 깨어 계셨던 주님, 살아있던 지금 아파하고 있는 생명들에, 우리가 늘 깨어 있게 도와주소서.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나와 우리 살림씨앗들에게 허락하소서.

Day 25 막8:11~26.25

- 세탁기는 자동 세탁으로 돌리기보다 가급적 물의 양이나 시간이 적게 들도록 조절하여 운전합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주님, 제 무디어진 감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Day 26 시19:8, 요15:10~11.26

- 오늘은 기후재앙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아보고 그것을 친구들과 함께 나눕니다.

- “주님의 명령은 올바르며, 마음에 기쁨을 안겨준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 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 당신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면, 우리는 걱정을 그칩니다. 우리가 당신 말씀을 들으면 포근해집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는 일을 보지 않습니다. 주님, 당신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의 힘입니다. (린돌포 바인게르트너) 주님, 봄이 기쁨으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넘치는 기쁨으로 살림의 싹을 내고 꽃을 피워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Day 27 막9:2~13.27

- 식사할 때나 외출할 때 컴퓨터를 끕니다.

-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140W)를 켜면 (1시간) 월 4.2kWh의 전력이 낭비됩니다. 또, 항시 절전 되도록 윈도우 제어판의 전원 구성표에서 모니터 끄기, 시스템 대기모드를 설정합니다.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빛나셨던 주님, 우리도 우리 안의 빛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안의 본모습을 보는 저와 살림씨앗들 되게 도와주소서.

Day 28 막9:14~29.28

- 오래된 전기 기구를 살펴봅니다.

- 꼭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면 사용을 중단하거나 에너지 효율이 높은 모델로 바꾸어 봅니다.

“아,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 ”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주님, 어릴 때부터 귀신이 사로잡고 있던 아이를 고치셨던 주님, 오늘 우리도 오랜 동안 세상의 악하고 헛된 것들에 붙잡혀 심히 앓고 있습니다. 낮기를 간절히 원한다 하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

를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Day 29 막9:30~41.29

- 원하지 않는 마케팅 정크메일(스팸메일)을 정지시키고, 친환경적인 검색엔진을 활용해봅니다. <http://Ecosia.org>는 여타 검색엔진과 달리 스폰서 링크인 세계자연보호기금(WWF)에게 발생하는 수익의 최소 80%이상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은 브라질 아마존의 열대림 보호 프로젝트에 쓰입니다. 검색 한 번만으로도 열대림을 지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지가 되어 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주님, 제가 오늘 하루 섬겨야 할 이를 보고 섬기게 하소서. 만나는 이들과 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Day 30 막9:42~50.30

- 주거하는 공간에 온도계를 걸거나 가능하다면 자동 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해 항상 이용합니다.
- 온도를 설정해 두면 열과 공기가 그만큼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대로 자연 냉방, 방열을 이용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에 집이 더우면 에어컨을 켜기보다 창문을 열고 겨울에 집안이 추워진다면 난방을 하는 대신 스웨터를 입습니다.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주님,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했던 다윗의 고백이 제 고백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저를 용서하셨듯 저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Day 31 막10:1~16.31

- 잼 병이든 봉투든 아이스크림 용기든 그냥 버리지 말고 재사용합니다.

“그들은 이제 돌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 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주님, 이 땅에 나와 살도록 짝지어 주신 수많은 생명들을 봅니다. 그 들 모두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결코 갈라놓아서는 안 될, 우리의 짝임

을 깨달아 더불어 살게 하소서.

Day 32 막10:17~31.32

- 냄비에 요리할 때나 물 주전자를 끓일 때에는 뚜껑을 덮습니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주님... 그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온전케 하옵소서.

Day 33 시편 19:8, 요 6:63, 히10:1,11~18, 요 17:1~11a.33

- 방안의 따스한 공기(열)이 보존될 수 있도록 커튼을 칩니다.

-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며,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진리의 말씀이시며 순전한 근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십니다. - 주님, 보게 하옵소서. 살림의 길을...

Day 34 막10:46~52.34

- 섬기고 있는 교회를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키는 구상을 해보고, 교회 지도자들을 찾아가 제안해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게 하옵소서. 다시 보게 하옵소서. 다 함께 밝히 보게 하옵소서. 살림의 길을...

Day 35 막11:12~25.35

- 가정 내의 탄소발자국(전기, 가스, 수도, 교통 등)을 확인하여 잘 보이는 곳에 기록해 둡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주님,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마음을 맑게 하고 온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Day 36 막11:27~33.36

- 자기 물건에 이름을 써 놓습니다.
- 잃어버리지 않아 덜 사용하면 에너지를 덜 쓰고, 덜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종기와 연필은 저 멀리 숲에서, 배를 타고 공장으로 와서 사막에서 나

온 석유를 사용해 나온 에너지로 돌아가는 기계와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 나온 것입니다. 지우개의 경우 석유와 석탄으로 만들어진 고무 합성물인데, 만드는 과정에서 유독한 물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주님, 세상이 부여하는 자격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의 정체성을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Day 37 막12:13~17:37

- 자전거를 즐겨 탑니다.
 - 매년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1/4이 수송 부분에서 나오는데, 자전거는 온실가스 제로의 교통수단입니다. 매일 하루 30분 씩 자전거를 타면 수명도 4년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 자전거를 즐겨 타면 건강도 지키고 지구도 지킬 수 있습니다.
-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주님, 흑백논리의 덫에 빠지지 말고, 삶의 모든 현실을 주님과 연결지음으로 우리 안에 생명의 바람이 불게 도우소서.

Day 38 막14:12~25:38

- 화장실 변기 속에 벽돌 하나를 넣습니다.
 -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의 1/4이 변기로 흘러 내보내는 물입니다. 보통 한 번 내리는 데 13리터가 버려지는데, 0.8리터의 벽돌 한 장을 넣으면 6%의 물을 아낄 수 있고, 대소변 버튼이 분리된 변기를 사용하면 3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주님, 하나님 나라에서 새것을 마시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도우소서.

Day 39 막15:33~41:39

- 화학첨가물이 든 음식은 멀리합니다.
- 군것질할 경우는 무엇이 첨가되었는지 확인하고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과, 자신의 생각과 행동은 물론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음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다.” 주님, 오늘의 교회에서 맘몬 신을 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Day 40 막15:42~47:40

- 집이나 교회 주변에서 자기 식물을 정하여 키웁니다.
 - 나무 한 그루가 평균수명 40년 동안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는 1톤 이상입니다. 따라서 1만 명이 나무 한 그루씩 심는다면 1만3천여 톤의 이산화탄소 흡수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당이나 옥상, 실내의 작은 공간이라도 좋고, 텃밭을 만들어 토마토나 오이 등 채소를 키워도 좋습니다.
 - 음식의 이동거리가 '0'인 점도 좋습니다. 정성껏 키워보는 것이 어떨까요?
- 요셉은 삼베를 사 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삼베로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러 막아 놓았다. 주님,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모두가 골로루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를 펴뜨리게 하옵소서.
- 지구를 구하는 삶 함께해야 행복합니다.

일주일 단위 탄소금식 캠페인

1주 아무것도 사지 않기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해 소비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봅시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고백하며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거절하여 자원낭비와 쓰레기배출량을 줄이고, 그렇게 절약한 것을 하나님나라에 투자합니다.

2주 1회용(플라스틱)금식

비닐봉지가 분해되는 데 5백년 이상이 걸립니다. 지구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비닐봉지와 일회용 컵을 사양하고, 장바구니와 텃밭 사용 생활화합시다. 개별 포장된 제품,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배달음식을 삼가고,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3주 전기 사용량 줄이기

3월 11일은 후쿠시마 핵사고 발생일입니다. 핵사고 이후 8년이 지났지만 피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핵발전은 기후변화의 대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전기사용량을 줄이는 노력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 뽑기 같은 작은 실천에서부터 일부 전기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결단까지 시도해봅시다.

4주 고기금식

축산업 분야는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는 요소 중 2~3위를 차지합니다. 가축은 먹이를 소화하면서 가스를 만들어 메탄을 내뿜는데,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20배나 많은 열을 지구에 가둡니다. 또한 목축으로 인한 산림벌채와 수질오염도 심각합니다. 건강에도 좋지 않은 과도한 육식을 삼가고 채식 식단을 늘여봅시다.

5주 전등 끄고, 기도의 불 켜기

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올해는 3월 28일)에는 전 세계가 지구의 시간(Earth Hour)을 지킵니다. 저녁 1시간 동안 불을 끄며 에너지 절약을 실천합니다. 일주일에 한 시간씩 전등을 끄고 기도의 불(촛불)을 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6주 종이금식

4월 4일은 종이 안 쓰는 날입니다. 전 세계 하루 종이 소비량은 100만 톤입니다. 이것을 한 줄로 이어 놓으면 지구 적도를 1500번이나 두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하루 종이사용을 위해 나무 1200그루가 잘려나가야 합니다. 종이사용을 줄이고 이면지를 활용합니다. 우편으로 청구서를 받고 있다면 온라인 청구서를 신청합니다.

7주 지구를 살리는 거룩한 습관

일회용 금식, 전기사용량 줄이기, 아무것도 사지 않기, 전등 끄고 기도의 불 켜기, 종이 금식, 고기 금식... 사순절 동안 실천한 여섯 가지를 돌아봅시다. 요일별로 한 가지씩 점검하며 다시 실천해보아도 좋습니다. 사순절 탄소금식 '경건한 40일'이 부활절 이후 일상에서도 거룩한 습관으로 지속되기를 다짐합니다.

<지구이웃과 함께 하는 40일 묵상여행> 목차

- 1일차 지구는 내 것이라! / 시 50:10~12
- 2일차 성령이 이 땅에 / 창 12:7
- 3일차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라 / 시 98:7~9
- 4일차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 창 8:22
- 5일차 은혜와 정의의 기초 / 삼상 2:8
- 6일차 마음가짐이 전제된 행동 / 빌 2:5~8
- 7일차 거류민과 이방인 / 레 25:23
- 8일차 나의 것! 나의 것! 나의 것! / 출 19:5
- 9일차 새로운 길이 필요합니다. / 단 3:74~76
- 10일차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 대상 16:31~33
- 11일차 포괄적 구원 / 욥 2:22~23
- 12일차 사랑, 소중히 여김, 양육 / 시 22:28
- 13일차 위대한 신비 / 시 104:24
- 14일차 우리는 으뜸가는 돌봄이 / 골 1:15~17
- 15일차 생명 존중 / 빌 2:5~8
- 16일차 번영의 바보들! / 레 19:9~10
- 17일차 우리의 걸음에 깨어 / 살전 5:6
- 18일차 모든 것을 먹어라 그러면 빨리 죽을 것이다 / 창 2:16~17
- 19일차 하나님 - 거기 그리고 여기에 / 창 28:16
- 20일차 티끌 한 점 / 단 4:3
- 21일차 거룩, 거룩, 거룩 / 사 6:3
- 22일차 지구의 우주적 자궁 / 창 1:9~12
- 23일차 기르신 대로 기르다 / 시 139:13~15
- 24일차 두 책을 동시에 읽기 / 롬 1:20
- 25일차 한계: 생명을 위하여 / 창 3:22
- 26일차 탄식과 대응 / 창 4:12
- 27일차 폭 넓은 관대함 / 집회서 7:32~33
- 28일차 다스림=섬김 / 창 1:28
- 29일차 생태적 나르시시즘 / 시 8:5~8
- 30일차 나의 작은 집 / 시 24:1
- 31일차 좌초된 지속력? / 레 2:7
- 32일차 문화는 아침마다 믿음을 먹는다 / 롬 12:1~2
- 33일차 동시에 위아래를 보기 / 신 10:12~14
- 34일차 환경 기도문 / 마 6:9~13
- 35일차 지속성을 위한 자각 / 롬 1:20
- 36일차 배제적이 아닌 포괄적인 언약 / 창 9:12~15
- 37일차 무지개 약속 / 창 1:31
- 38일차 태도 혹은 정치를 바꿀 것인가? / 롬 1:20
- 39일차 한계 없는 죽음 / 창 2:16~17
- 40일차 시간이 되었다 / 전 3:1~2

2020 기후 회복을 위한 40일의 약속

탄소금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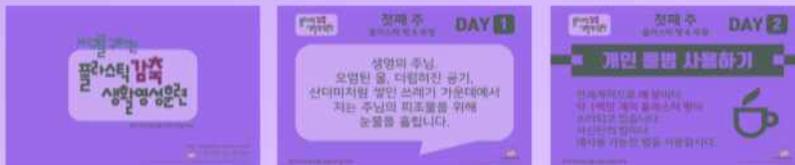
인간이 무심히 일회용품을 쓰고 버리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동안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지금도 많은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에서는 산불이 5개월이 넘도록 잡히지 않고 지속되어, 수많은 동식물이 불타 사라지며 주께서 창조하신 지구의 환경은 더욱 고통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손 놓고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0일의 약속, 탄소금식>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이 캠페인은 사순절 동안 지구의 아픔을 덜어주는 기록한 습관을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걸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목상과 함께 '탄소금식'을 약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시대의 금식과 절제에 준하는 목상자료들이 제공될 것입니다.

2020 탄소금식 캠페인 카드뉴스(1일 단위/ 1주 단위)

<2020 탄소금식> 캠페인을 공동으로 전개할 <언론, 교회 등>을 찾고 있습니다. 1월 28일(화)까지 신청해주시면 언론과 교회 이름을 넣은 홍보이미지에 목상집 40일 여행'을 함께 제공해드립니다. (010-8966-1557(문자)/ecochrist@hanmail.net)



'지구이웃과 함께하는 40일 목상여행' (남호주연합교회 자료 번역출판)



창조세계 회복을 위한 탄소금식 캠페인 설명회가 1월 30일(목) 11시에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신관 4층 '크로스로드'에서 있습니다. (자료 제공)

☐ <탄소금식> 목상 및 실천 캠페인 포스터